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월호
Mar. 2010

[한인회 소식]

1) 순회영사 업무가 오는 4월 10일(토)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시간: 오전 11시~오후 4시
- 업무: 여권갱신-여권사진 2장 필요함.
(전자여권은 10년이오니 기한이 1년 정도 남아 있어도 갱신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자발급, 재산포기, 거주확인 그 외 등등.

2) 뉴멕시코주 한인회를 소개하는 안내서 '한인록' 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업무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목차, 본문, 부록까지 전체 120페이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부록에는 뉴멕시코주 23년 한인회의 역사 및 거주자를 위한 필수정보 및 뉴멕시코주 관광명소(벌론 피에스타, 샌디아, 타호, 썬타페, 화이트 샌드, 칼스배드, 올드 타운, 동물원 등)를 실을 계획입니다.

3)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Sensus 인구조사는 3월 19일~4월 19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중 한인회관을 매주 수요일 12시~4시, 목요일 9시~4시까지 오픈하니 이용바랍니다.

4) Dance Class (건강댄스)

3월3일부터 매주 수요일 10:30~11:30
(문의: 271-1777)

5) 만두바자회

3월 30일, 31일
(주문, 문의: 271-1777)

6)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원국적차별에 대한 회의가 4월 15일 (목) 1:30pm 한인회관에서 있겠습니다.

7)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 * 한인회관에 Karaoke 노래방 기계후원
-Kelly Liquor Assoc. 협회
- * 물품후원(1년~2010년)
-위점덕님
- * 빙고게임 선물후원(1년~2010년)
-Diane Kreitinger (아버이회 모임)
- * 아버지회 모임(목) 구정음식 후원(2/11)
-한인천주교/Juan Tabo-kelly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3월 봄방학을 맞아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빨리 등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3일에는 Easter Egg Hunt & Picnic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봄방학 미술캠프 (유치원 - 8학년)

Spring Break Art Camp (K - 8th) NEW!

- 기간 Dates: 2010.03.15 - 2010.03.19
- 시간 Time: 09:00 - 12:00
- 수업료 Tuition: \$100 + 재료비materials fee

봄방학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3월 5일까지 등록 해주십시오.

Open to all students. Please register by March 5th to guarantee a spot.

Easter Egg Hunt & Picnic

- 날짜 Date: 2010.04.03, 토요일, Saturday
- 시간 Time: 11:00 AM - 2:00 PM
- 장소 Location: 미정 TBA (Please check our website.)

모든 한인가정을 위한 행사이오니, 많은 광고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햄버거와 핫독, 그리고 물을 준비하오니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누어 드실 음식을 부탁드립니다.

Everyone is invited to our Easter Egg Hunt & Picnic. We will provide hamburgers, hot dogs and water. Please bring an appetizer/side/dessert to share.

한글수업 안내

Korean Class Information

-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 캠페인 - 수업료 \$100
- 2010 "Love for Korean" Campaign - Tuition \$100

청소년/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 수요일 Wednesdays, 6:30 - 8:30 PM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미술반(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 을 눌러 주세요)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연락처 /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UNM 한인학생회 소식]

안녕하세요! UNM 한인학생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UNM 한인학생회 Spring 2010 개강총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Fall 2009 개강총회에서처럼 한인회에서 흔쾌히 한인회관을 제공해주셨고, 아리랑 마켓에서 떡과 김치를 후원해 주셔서 학생들이 설을 맞아 떡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러 모로 신경 써 주신 주님의 교회 교인분들, 그리고 침례교회 교인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회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학기와 같이 Kim's Market에서 후한 경품을 보내 주셨고, Sizzler에서 최진 회장님께서 Gift Certification 을, Coors Kelly liquor store(이정옥, 김민지님)에서 와인과 Thunderbird 농구 경기표를, 한글학교 전옥미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여러 학생들이 추첨과 장기자랑을 통해 골고루 잘 받아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와주신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님, 학생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니다.

일년중 대부분의 UNM 한인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봄학기과 가을학기 개강총회 뿐인데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더욱이, 아쉽게도 Albuquerque, Rio Rancho 한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초청장을 보냈으나, 반응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개강총회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을학기에 비해 Albuquerque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학생회에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락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들뿐만이 아닌, 한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NM 한인 학생회는 이번 4월에 UNM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Festiva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음식도 판매하면서 다음 학기를 위한 Fund Raising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봄이 올 것처럼 날씨가 풀리더니 다시 추워지면서 환절기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Albuquerque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음 광야의 소리에서 찾아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

UNM 한인학생회 임원진 일동.

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

한국학교 소식

UNM 한인학생회 소식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보약... 쌀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

남편에게 절대로 물어보서는 안 되는 것

알버커키와 시인 황갑주 (II)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업소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건강상식]

쌀 이야기... 밥하기 전에 쌀을 불려야 하는 이유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보약... 쌀

고혈압은 낮추고 간 기능은 높이고 암 예방까지
혈액 내 인슐린 수치 서서히 증가, 비만억제 효과

1인당 쌀 소비량 74kg.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성적표다. 이 성적표를 받아든 쌀은 억울하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의 인스턴트식품과 각종 건강 보조 식품에 밀려 소비가 감소하는데다 비만의 주범인 양 인식돼 식탁에서도 적잖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은 우리 민족과 5천년이나 함께 해 온 에너지원이다. 식이섬유는 물론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아가 성인병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고,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와는 반대로 밀가루와 육류를 주식으로 해 왔던 서양인들은 최근 쌀이 비만예방에 좋은 것을 알고는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쌀의 기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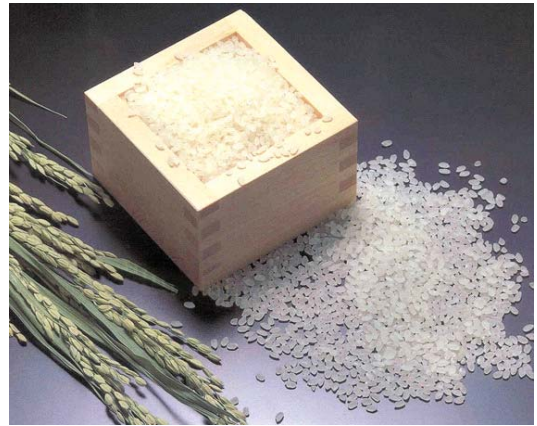
물에 불리면 급격히 늘어나는 기능성 '가바' 성분

요즘 쌀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소 흥분한 기색이다. 쌀에 고혈압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가바(GABA)' 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특히 혈액 내 중성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을 높여줘 성인병을 예방해주기도 하는 물질이다.

'가바'는 감마 아미노락산이란 물질이다. 이 물질은 쌀의 배아 즉 쌀눈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차(茶)나 다른 곡물에도 들어 있지만 쌀에 들어 있는 가바는 혈압개선 효과가 더 크다.

가바 성분은 현미(玄米) 100g당 8mg이 들어 있고, 백미에는 5mg정도 들어 있다. 이



5천년이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쌀. 우리의 주식으로서 건강과 에너지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그 쌀의 소비가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불과 74kg. 쌀 소비량 감소는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채우는 만큼 비만과 성인병 등 국민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도의 양으로는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쌀을 물에 불리면 '가바'의 성분은 크게 증가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섭씨 40도 물에서 4시간 정도 쌀을 불렸더니 당초 100g에 5mg 밖에 들어 있지 않던 '가바' 함량이 300mg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세끼 식사만으로 '가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집에서 밥을 할 때는 쌀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가바' 성분은 현재 뇌 혈류를 개선하는 의약품으로도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IP6' 물질도 발견

요즘 기능성 쌀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가 'IP6'이라는 성분이다. 현미의 식이섬유에 많은 이 물질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IP6'은 세포의 생장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은 물론 지방간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대장암에 걸린 쥐에게 1%의 'IP6' 수용액을 먹였더니 암세포수가 크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 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 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IP6’은 주로 쌀겨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현미에 2.2%가 함유되어 있고, 도정 정도에 따라 함유량이 떨어진다.

결국 쌀의 건강 효과는 현미가 가장 좋고 3분도 쌀> 5분도 쌀> 7분도 쌀> 백미의 순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씹어야 하고 식미감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현미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밥을 할 때 차츰 현미나 발아현미의 비율을 높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적응도 가능하다.

쌀은 비만의 주범일까? 아닐까?

쌀의 영양성분은 도정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정을 많이 할수록 소화는 잘 되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등 영양성분은 감소한다.

기본적으로 쌀의 성분은 탄수화물이 100g당 79.6g, 단백질 6.8g, 지방 1g, 조섬유 0.4g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 쌀 당질의 78%는 복합 당질인 전분인데 전분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 흡수되어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쌀의 영양을 이루는 주종은 탄수화물(당질)이다. 밥 한 공기(대략 200~250g)는 350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일상 생활은 물론 두뇌 활동에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셈이다.

문제는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해서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일제시대 때 강제수탈로 부족해진 쌀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트린 소문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 연구팀은 하루 세끼 밥을 거르지 않고 먹어도 실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65%밖에 안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비만은 채소 중심의 전통 식사 대신 육가공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과잉 섭취와 잦은 군것질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쌀밥은 빵과 국수와는 달리 식후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하지만 빵과 국수, 육류 등은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럴 때 비만 세포에는 지방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식품영양학자들은 쌀밥을 하루 세끼 똑같은 양으로 먹을 경우, 체내 포도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두뇌의 회전을 돕고 신진대사를 도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밀가루와 육류 섭취가 많아 비만과 성인병 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법이지만, 미국과 유럽 사람들처럼 쌀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쌀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어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약 1/3이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된다. 또 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높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의 농도를 낮춰 준다.

이밖에도 쌀에는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은 물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비타민 E 등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쌀은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곡물로 매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면 곧 보약을 먹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물과 공기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쌀이다. 우리 민족의 에너지원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쌀. 매년 줄고 있는 쌀의 소비량을 보면서 그만큼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이제라도 쌀의 기능성을 생각하고 소비하고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A Life of Faith]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

§ 여왕, 여인 §

오렌지의 메리 여왕(Queen Mary of orange 1695)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속에 품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of England 1603)은 강인함과 신중함, 의심과 교만, 강인한 고집, 화려함과 장엄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옷장에는 이천여 벌의 값비싼 옷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소유는 단 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군."

§ 과학자 §

광학 분야에서 뛰어났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브루스터 경(Sir David Brewster 1781~1868)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랐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남겼다.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1891년 사망한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베이트먼(Thomas Bateman)은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다.

"나는 이제 분명히 가야만 한다. 내 기억은 너무나 빨리 쇠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안녕"

쿠라엔스(Curaens)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은 독일의 의사였습니다.

"내 가슴은 영생, 즉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불타고 있다. 나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위에 있는 처소를 열망한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부활이시자 생명이시니이다."

바젤(Basel)에서 의학교수로 활동한 주니거(Zuniger)는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바라며 살았던 소박한 신자였습니다.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해 왔으며, 내 영혼이 그분을 열망해 왔다."

§ 무신론자 이교도 §

비기독교인인 안티테우스(Antitheus)의 마지막 말은 양심의 가책과 절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나를 죽게 해서는 안되오. 나는 감히 죽을 수 없소. 오 의사 양반! 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소. 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소. 내가 오늘 밤 침대에 말 없이 누워 있을 때 내 친구의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내 침대의 커튼을 열고 한동안 내 발치에 서서 열심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소. 내 마음은 무거웠소. 그의 얼굴이 내가 결코 묘사할 길이 없는 공포와 고뇌를 담은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오.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머리를 내저으며, '아!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네.'라고 부르짖으며 사라져 버렸소. 나는 정말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소. 그의 피 묻은 손자국이 그 커튼에 남아 있단 말이오."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4)가 남긴 작품은 리바이어선(Leviathan)입니다.

이 회의론자는 당대의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의 마지막 말은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갖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기 위해 기꺼이 내어 주리라. 그 세상에서 빠져 나올 구멍을 찾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어둠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저명한 미국의 작가이자 비기독교인이었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는 180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어린 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 주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오.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오."

1797년에 사망한 윌리엄 포프(William Pope)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루 바닥에서 이리저리 차고 다니거나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 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영원!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라 영원한 고통이여!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네. 내가 증오했지 않은 것은 마귀뿐이라네. 그와 함께 있기 바라네. 지옥에 있기를 갈망하네. 자네들은 보지 못하는가? 그를 보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유명한 프랑스의 이교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Voltaire)는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해 펜을 사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Cell : 331-2234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용했습니다.

그는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음험한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 집이 제네바 성경협회의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도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킴(Trochim)은 볼테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여섯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 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즈』(Maurice Rawling M.D)박사가 죽었다 살아난 많은 환자들을 병상에서 인터뷰한 것을 종합한 『죽음의문 너머』(Beyond Death's Door)라는 책의 내용이 월간 신동아(新東亞)에 소개된 적이 있다

국제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가인 롤링스 박사는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켰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7년 롤링스 박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내려가면서 공포에 떨며 소리치는 한 남자를 소생시켰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환자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지옥에 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간청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두려움에 찬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과장한 얼굴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선 듯이 보였다.

이교도 케이(Kay)는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옥! 지옥! 지옥!"

§ 기독교인 §

구세군 창시자의 아내였으며, 전도자였던 캐더린 부스(Catherine Booth)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잘 살 거예요."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는 아직도 남아 있는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를 세운 인물이다. "무디"는 죽음이 임박했다. 12월22일 금요일 아침 그의 아들 "월"은 복도 건너편 아버지의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고 그때 월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무디는 말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다" 월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나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의식을 잃어갔다.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끊어졌다. 주치의가 구명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나 자기가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노라고 말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있는데 그 곳은 말할 수 없을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 후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안에 와 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 에드워드 페이슨(Edward Payson 1783~1827)는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취 주시는 걸까."

§ 작가 §

독일 문학가인 괴테(Johann W. von Goethe 1749~1832)는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우스트, 진리와 허구 등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빛이 더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톨릭 반동파 지도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마담 잔느 기용(Madam Jeanne Guyon)은 뱅센(Vincennes)에 있는 감방에서 많은 영적인 글을 썼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보리라는 생각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한 발이 말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전학자 클로디우스 살마시우스(Claudius Salmasius)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시간의 세계를 잊어 왔다. 내게 일 년이 더 있

다면 그 시간은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을 탐구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세상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의 연극과 드라마에서 수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52세에 죽음을 맞이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프랑스의 여류작가 롤랑드(Madame Rolland 1866~1944)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오 자유!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졌는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이와 같이 고백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 철학자 §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영혼아, 너는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감옥생활을 마치고 이 몸의 속박을 떠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기쁨과 용기를 마치고 이 분리를 겪으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죽을 때 이와 같이 말했다

"괜찮아"

§ 작곡가 §

독일의 귀족어린이인 작곡가 베토벤(Ludwig Von Beethoven 1770~1827)은

"나는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루리(Jean Baptiste Lulli 1632~1687)는 생을 마치면서 과거의 불건전함을 회개하고 목에 밧줄을 두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었다.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존 켄트(John Kent 1766~1843)는 뛰어난 찬송작가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 77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노라. 나는 영접되었네, 영접되었네!"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를 작사한 톱레디(Augustus Toplady 1710~1778)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느 누가 셋째 하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맑고 한 점의 구름도 없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여주신 영광들을 본 후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 화가 조각가 §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Michaelangelo 1475~1564)는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는다."

1849년에 사망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에티(William Etty)는 사후 세계를 확신한 사람이다.

"놀랍다 놀랍다. 이 죽음이!"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터(Dr. William Hunt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펜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편안한 일인지 기록하려면"

[에세이]

남편에게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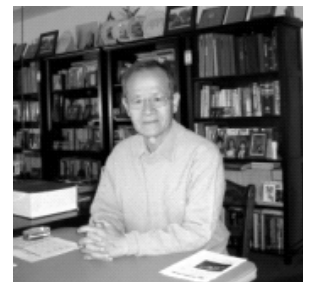
"사는 게 영 영망이 되겠지,"

남편이 대답했다.

"왜 그런 걸 다 물어?"

"당신, 재혼할 거야?" 아내가 끈덕지게 물었다.

"아냐, 물론 아니지."



“결혼생활이 싫어서 그래?”

“결혼생활이야 물어볼 것도 없이 좋지.”

“그런데, 왜 재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릴 하고 있네. 좋아, 그럼 재혼하지 뭐.”

“재혼하겠다고?”

기분이 좀 상한 표정으로 아내가 물었다.

“음, 그래.”

“그럼 우리가 쓰던 침대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잘 거야?”

“그래야 하겠지?”

“그래? 그럼 내가 입던 옷들도 그 여자가 입게 할 거야?”

격분해진 아내가 물었다.

“여자가 원하면 그래도 되겠지.”

“정말? 그럼 내 사진은 모두 떼어내고 그 여자 사진을 붙이겠네?”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냐?”

그러자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다그쳤다.

“그래? 그럼 내가 쓰던 골프클럽도 그 여자더러 쓰게 하겠네?”

“여보, 그건 안돼! 그 사람 왼손잡이야.”

남편의 대답이었다.

세상에 웃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웃음은 보통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세워지게 만들었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웃는 것으로 만족하고, 왜 웃는지, 웃음이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수년 전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고, 때 되면 밥 먹고, 잠자고, 일하러 나갔다. 주위에 행여 흉한 꼴을 보일까 봐 모든 것을 안으로만 삭이다가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기 힘들어서 연구실 문을 잠그고 남몰래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반복되던 나에게는 심기일전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 사람은 흔히 웃어버리고 만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아니 세상 자체가 어이없어 보일 때가 있다. 해서, 뜻밖에 일어난 사실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그저 웃어버림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웃음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능력, 즉 불가해한 것을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 곧 웃음이라고 말한다. 완전한 경지에 가까운 인간적인 이해의 표현이라고도 말한다.

웃길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넓은 의미의 유머와 좁은 의미의 우스개가 있다. 풍자나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우스개와는 달리, 유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일어난다. 우스개는 대부분 허구이지만, 많은 경우

놀라우면서 매우 진지하기도 하다. 유머는 대단히 재미있으면서 흔히 인간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유머에 담긴 웃음 뒤에는 가볍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과 세계에 관한 값진 지혜가 허다히 숨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말이나 글로 남긴 수많은 웃음에 접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하면서 뚜렷한 개성을 지녔던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한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유머를 즐길 수 있는 센스가 없었던들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의식적으로 유머를 즐긴 나머지 이야기 하는 도중에 자주 킬킬대며 웃었다. 종교를 초월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달라이 라마는 망명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분명 세상을 사랑했고 평화로웠다.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것이었으며, 살아가는 동안 웃을 일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머는 웃음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웃음이고, 질 높은 웃음이다. 용감하고 위엄 있는 자의 웃음이다. 숭엄한 데가 있어서 번득이는 지혜를 가진 자, 용기 있는 자, 관대한 인간성을 지닌 자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다. 유머에는 죽음으로도 누를 수 없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 유머는 그러나 차가운 마음에는 깃들이지 않는다.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자극제이며, 타성에 젖은 생활에 훌륭한 청량제로 작용하는 것이 유머다. 그리고 긴박한 순간을 기지로 모면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유머를 즐기면 타인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며, 행동양식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등의 이점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웃음을 진지함의 결여나 엄숙함의 상실과 연결시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조류도 있다. 그것은 유머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익살스러우면서 격조 높은 유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웃고, 늘 웃음거리를 찾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며, 슬픔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웃음이라는 사실은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웃지 못하는 사람은 진지해질 수도 없는 사람이다. 유머를 구사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인간의 문화생활 전체의 질과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저질웃음이 불러일으킬 위험성이지 인간성이나 인간행위 속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어처구니없이 우스꽝스러움을 드러내 보이는 데 쓰이는 유머가 아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과두정치보다는 조금 낫되, 폐거리가 지배하는 천한 정치체제로 폄하했다. 발끈한 정권의 실력자들이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제자들이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며 슬퍼하자,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달랬다. “그 자들도 자연에 의해 이미 사형언도를 받지 않았는가!”

알버커키와 시인 황갑주 (II)

이경화 장로

지난 달에는 시인 황갑주 선생의 알버커키에서의 첫 이 민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를 세편 소개했는데, 이번호에서는 알버커키와 뉴멕시코 지명이 나오는 시를 몇 편 소개하려고 한다. 시인 황갑주 선생이 1971년경 알버커키에 계신 동안의 그의 생활 모습을 그의 시집 "하늘이 따라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후기(後記)에 잘 요약해 놓았다. 이를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시 그 먼 사막 속 마을 속에도
우리 유학생이 있었다. "주말엔"의 형들 외에도 여
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바쁜 중에도
우리는 모여 회포를 풀고, 윗놀이, 고향노래, 맥주
반잔에도 뒤를 흔들고, 모국어로 실컷 떠들고 나면
, 땀에 젖은 속이 풀렸다. 막막한 인생여로 (人生旅
路), 이색적인 경치풍토에 낯 익혀야 했다. 칼스 케
이번, 화이트 샌드,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텍사
스 등지 주말 코스로 사막의 지평선을 운전하고 다
녔다. 콜로라도 듀랑고 산상 스키장에서의 며칠은
만사를 잊을 수 있었다. 세계의 피난처 같은 알버커키
에서의 1년은 차분히 준비와 단련을 쌓았다.

황갑주 선생은 UNM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아파트에 살
았고, 우리는 UNM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 부부 아파트에
살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지 쇼핑가는 곳도
비슷했다. 그 당시 우리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은 인디
안 스쿨과 칼아일 코너에 있는 케이 마트(K mart)였다. 케
이 마트는 황갑주 선생 가족에게도 친근한 곳이었나보
다. 아래의 시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케이 마트를 오
가면서 고향땅에 있는 무량산, 섬진강을 생각하고 새로운
고향을 개척하는 개척정신도 담긴 시다.

고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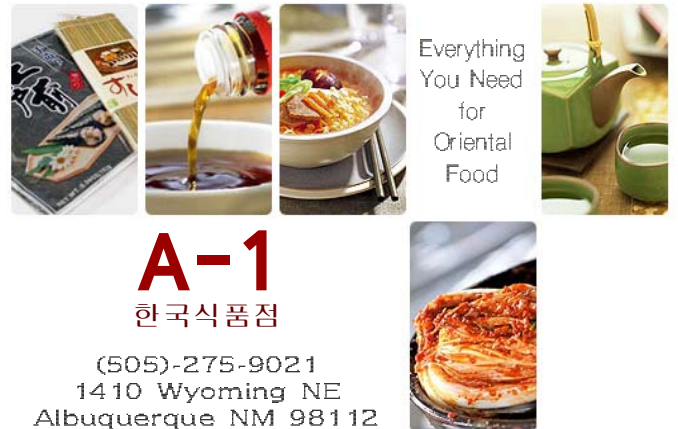
내 발자국을
많이 남긴 곳이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들과 어릴 때
학교길.

산등성, 우리 밭고랑
우리 어머니 발자국
논길, 아버지 발자국
항상 제 자리에 놓인 무룡산
섬진강이 적시는 적은 평야는
내 발자국을 뿌린
어린 시절의 우주.

타국살이 하며
회상하는 내 발자국
주말 오르내리던 도봉산
천마산에 남긴 내 발자국
명동길은
내 희망 태우던
서울 시민의 골목

아메리카
로스앤젤리스 번두리
그렌데일시를 떠나
뉴멕시코 온통 황색 대지속
알버커키시의 온통 청색 하늘밑에서
밟던 내 발자국
케이 마트 길.

타국에서 살 길 헤매자니
내 발자국이 엉킨 고장들
지나면 낯설지 않는
이국의 고향도 생기고
고국의 고향은 너무 멀구나.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나의 경험으로도 우리 가족이 알버커키에 사는 동안 주말여행을 가장 많이 다녔던 것이 1970년초였는데, 그때 여행할 때마다 황갑주 선생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다. 그 분이나 우리 유학생들 모두가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녔기에 어디서 차가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행을 갈 땐 되도록 서너 대의 차로 함께 가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그가 뉴멕시코의 광야를 고속도로로 달리면서 쓰신 시를 여기에 하나 소개한다. 한국에서 고속도로가 생기기도 전에 이곳에 왔던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공감되는 시였다.

일기초(日記抄) I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거쳐 캘리포니아를 이은
황지(荒地) 고속도로를 달릴 때

90마일을 놓고도
나의 운전은 정지 같았다.
일직선으로 뚫린
몇 백리가 눈 앞에 있는
고개를 넘으면
다시 몇 백리가 눈 아래 온다

길 언덕에서 보면
나의 차는 날으는 속도권만
달려도 달려도 달리지 않는
우주공간에
점 하나 걸어가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달리는 동안
이 버려진 황지만 탐이 났었다
사람은 많고, 일터는 없고
사람은 불어나는데 땅이 좁은

서울의 들끓는 인구
이 별판에 퍼냈으면
신은 야속하기만 했다
땅은 넓고 넓은데
사람이 없는
이 허허 별판.

황갑주 선생은 약 1년 간 이곳에서 첫 이민 생활을 한 뒤 LA로 이사를 했지만 사막을 사랑하게 된 그분은 애리조나 Phenix에 콘도를 구입해서 서재로 쓰면서 애리조나와 LA를 왕래하면서 집필을 계속하셨다. 그의 미국에서의 두번째 시집 "사막기"에는 이 시기에 사막을 노래한 시가 여러편 실려있다. 서간집 "애리조나 사막에서 고국의 벗들에게"라고 한 책도 이 기간 중에 쓰신 서신을 모은 것인데 그분의 일기장과도 같은 서간집이다. 책 표지의 사진은 애리조나가 아닌 뉴멕시코의 풍경이다. 코스모스의 배경은 헤이메즈산의 하나인 Cerro Pedernal산이다. 고스트 랜치에서 살던 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사랑하던 산이다. 시인 황갑주 선생도 이 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뉴멕시코의 경치를 표지에 썼나보다. 그의 사막 사랑의 절정의 시 "사막기"를 소개한다.

사막기 (沙漠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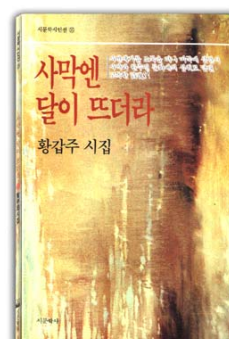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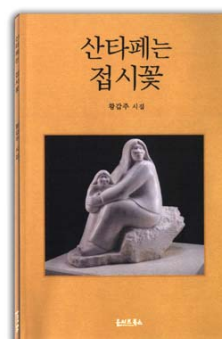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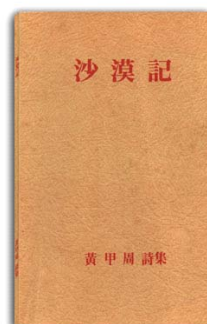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를 사랑한다.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 텍사스주도
사막이 열린 어느 주의 하늘 땅도 사랑하리라.

태어나서 그리움은 다 이루나니
어린 시절 먼 하늘 끝 그리움은 이 사막에
흘러와 더는 그리움이 없도다.

이승 경험은 사막뿐이다.
아 나의 존재를 더는 확인하지 않는다.
광망도 그대 없이 있지 않는 하늘 땅을
나를 잃어서 비로서 사랑하리라.

캘리포니아주를 살다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 텍사스주도
사막이 이은 어느 주를 거치다가
나의 그리움은 그대 없이도 광명하리라.

뉴멕시코주의 남쪽에 있는 라스 쿠르시스에서 애리조나 투산으로 가는 10번 고속도로를 달리면 데밍(Deming)이란 마을을 지난다. 이 곳에서 하룻밤을 투숙하고 허허별판의 무인지대에 하늘과 광야만이 펼쳐진 이곳을 나도 달려본 적이 있다.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황선생의 시를 생각했었다. 그 분의 시가 바로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시집 "사막엔 달이 뜨더라"의 서문에 보면 그 분의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원문을 옮겨 본다.

사막을 달리는동안 나의 싸구려 자동차는 이내 고물차로 남아버렸다. 광활한 하늘땅의 지평선만 텅텅거리며 신나게 활주하는 동안, 내가 신들려 중얼대는 시구(詩句)를 옆자리에서 아내인 영희가 넓은 달력 뒷면을 펼쳐 놓고 나만이 해독할 수 있는 거미꼴의 속필로 나도 겨우 풀이해 낸 흥얼거림들이 "사막엔 달이 뜨더라" 등의 연작시이다. 사막만 달리면 주체할 수 없도록 황홀한 영감이 쏟아져서 나를 실신케 하므로 저승과 이승을 함께 살며 영원을 본다.

연작시 "사막엔 달이 뜨더라"의 7번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끝을 맺기로 한다. 지난 40년간 만나지는 못하면서도 시집이 나올 때마다 시집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서신으로 소식을 주신 황갑주 선생의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

사막엔 달이 뜨더라 7

달리다 가 숨이 멎어
죽고 싶은 곳
사막의 노란 꽃밭
너무 아름다워 죽고 싶은 곳
하늘 변두리엔
절세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꽃밭에 누워
하늘 땅 껴안고
눈 깜박이며
잠자는 황홀한 사막
데밍 사막을 지나면서
죽고 싶은 곳

시인 황갑주 선생은 1930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 동국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음.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음. 저서로는 "저 내년에라도"(1965), "하늘이 따라와"(1973), "사막기"(1979), "나성에서 본 광주의 하늘"(1988), "사막엔 달이 뜨더라"(1992), 서간집 "애리조나 사막에서 고국의 벗들에게"(2006), 시집 "시인이 쓴 통일 노래"(2007), 시집 "산타페는 접시꽃"(2008) 등이 있음. 황갑주 선생은 재미 시인상을 수상했고 1982년 LA PBS(KCET) TV방송국 초청으로 출연하여 자작 시낭송을 한국어로 하였음(영어자막을 포함). 1992년 미주 문학상을 받음. 미주 문학상은 받은 시인 중에는 마종기(89년), 김용팔(90년), 고 원(93년), 박남수(94년) 등이 있음.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든다

김준호 장로

원자폭탄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투하 며칠 전 미국은 일본에게 미리 경고 비라를 살포했다. 며칠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대피하라는 비라였다. 일본은 경고를 무시했다. 아무도 원자폭탄의 위력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1945년 8월 7일, 미국은 예정대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이를 뒤에는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해가 일어났다. 기록에 의하면 히로시마의 사망자는 14만명, 나가사키는 7만명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항복하게 되고 2차 세계 대전은 끝나게 되었다. 히로시마 폭탄은 우라늄 235를 농축한 것을 썼고 나가사키는 프로토늄 239를 썼다고 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미국은 종전 직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선심 정책을 썼다. 패망한 일본의 재건을 도왔다. MacArthur 장군은 당시 통치자였던 일본 천왕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지 않았다. 또한 MacArthur 장군은 천왕 중심인 일본을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탈바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그는 라디오에 들어가는 heterodyne 회로 특허를 일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서 일본에서 휴대용 라디오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본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사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여간 일본은 전쟁 패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라디오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다량생산을 하게 되었다. 생산된 많은 라디오들의 숫자가 넘쳐나자,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라디오를 팔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MacArthur 장군은 이 요청을 수락했다. 그 결과로 Made in Japan 라디오가 미국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수출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MacArthur 장군의 많은 공적이 있었음을 일본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라늄 235"란 원자가 핵분열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려 193 MeV (Mega electron volt)이고 반감기는 7억 년이다. "프로토늄 239"란 원자는 199 MeV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반감기는 2만 4천년이라고 한다. 보통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약 13 eV 라고 하니까 약 1억 배의 에너지가 더 생산되는 셈이다. 이 에너지는 Einstein의 방정식 $E=Mc^2$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와 맞아떨어져 Einstein의 이론은 더 유

명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폭탄은 농축된 우라늄이나 프로토늄을 고속 중성자로 때려서 핵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애플단지이다. 한국에서 어떤 가정에서는 녹용이 건강에 좋다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먹인다고 한다. 그런데 녹용 안에 방사능 스트로미움 90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녹용을 아이에게 먹이면 머리가 나빠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이 스트로미움의 반감기는 30년이므로 몸에 한번 침투되면 좀처럼 없앨 수가 없다.

요 근래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해서 세계가 떠들석했다. 핵 실험하는 것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므로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기술을 미끼로 배짱을 부린다. 특히 최근에 악화된 경제 사정을 해결하려고 배짱으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멋대로 6자 회담에 참가한다 안한다 등이랬다 저랬다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픈 것이고 아직 아무도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독자들 중에 어쩌서 남한에서는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할까 궁금해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원자폭탄 확산을 되도록이면 막자는 데 있다. 우리가 알듯이 원자 폭탄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최상의 살상 무기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남한에서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다가 들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연을 들어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비밀을 누설한 자와 연구원 간에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돈이 문제가 되어 비밀이 탄로가 났던 것이다. 만약 미국이 도끼눈을 뜨고 주시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눈감아 주었다면 우리나라도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현재 남한의 과학기술은 첨단에 와 있다. 몇 달 전에 한국이 United Arabia Emeritas(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판매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축하해야 할 단군 이래 처음 있는 경사 중의 경사다. 마지막 경합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등과 겨루어 우리가 이긴 것이다. 미국의 기술, 프랑스의 기술, 일본의 기술 등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최고인데 이 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에 방문하여 멋진 외교로 성사 시켰다고 한다. 나는 이 대통령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리들은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기억한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가지고 수천리 길을 여행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40일 만에 완성했고 또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봉급을 사양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사양한다고 들었다. 어떤 대통령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한 그것을 숨기느라고 기를 쓰고 있었다는데 말이다.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정말 요지경 속이다.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니까 못할 짓이 없

었나 보다. 그런데 이번에 따온 총 사업 규모는 400억불이라고 한다.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하면 프랑스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형상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이 힘든 나라이고 현재 90%의 전력수요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그 나라의 노하우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이므로 나는 원자력 발전소 판매를 위한 이번 경합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은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원자탄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된다. 아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부터 라고 주장해도 좋다. 현대 물리학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박차를 가하기 시작 했고 물리학 분야만 보더라도 순수물리, 응용물리, 이론물리, 고체물리, 기체물리, 핵물리 등 수도 없이 다양하다. 원자핵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들이 핵을 찢고 까부르고 부시고 불리고 뜯어내고 별별 야단을 다 하면서 연구해 낸 것이 원자폭탄이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이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는 1959년에 창시되어 태능에 있는 서울 공대 바로 옆에 세워졌다. 내가 공대에 다닐 때는 그저그런 연구소가 옆에 있는가 보다 했을 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연구실 연구원으로 취직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 부끄러울 정도로 무관심했던 일에 큰 관심을 쏟게 되었다. 나는 쫄병 중의 쫄병이므로 실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다. 연구소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고장 나면 의례히 전자 공학실로 통첩이 온다. 그 기계에 대한 경험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수리하라는 지시가 우리에게 떨어지곤 했다. 전자 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공거리며 수리에 임했다. 한번은 원자로 연구실에서 Pulse Height Analyzer가 고장 났는데 당장 와서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동위원소가 어떤 것이 있으며 방사능 강도는 얼마인지를 검출하는 기계인데 가서 뒷문을 열고 보았더니, 'Oh, My God!' triode vacuum tube가 수십 개가 짝 차 있는 것이었다. 이것들을 하나씩 조사하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릴 듯 싶었다. 그런데 원자로실 연구원은 빨리 고쳐달라고 재촉한다. 만약 원자로내의 chain reaction(연쇄반응) control rod를 조정하지 못하면 원자로가 폭발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전자회로를 고치는 요령도 배우고 빨리 고치는 기술도 배우게 되었다. 한 가지 여담은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공대와 한양 대학교 전기과의 시간강사를 했었는데 공대는 바로 옆에 있어서 강의하러 가기가 쉬웠지만 한양 공대는 동대문까지 버스로 가서 또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한양 대학까지 가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한양대학까지 갔는데 학생들이 모두 데모하러 나가서 공친 일 이 있었다. 그 후에 보니

서울 대학에서는 강의를 안 했어도 별 문제없이 강사료를 받았는데 한양 대학은 강의 안 한 시간을 빼고 강사료를 받아서 붓다리 장사꾼의 서러움을 겪기도 했었다. 그 후에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험문제를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우는 소리를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점수는 후하게 주었더니 다들 좋아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양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무슨 과학소설(Science Fiction)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어떤 이들은 공상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구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는지, 또 앞으로 몇 년 더 지탱할 것인지, 어떻게 태양이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는지를 살살이 알아낸 것이다. 태양의 역사는 4.5 billion years이고 앞으로 5 billion years를 더 갈 것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또 놀랄 사실은 이 거대한 태양의 70%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인 수소로 되어있고 25%가량이 그 다음으로 가벼운 기체 Heliu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체들이 사방으로 뿜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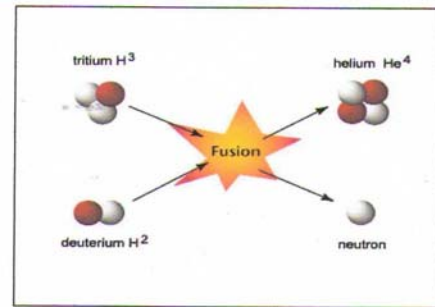
도망가지 않고 뚫뚫 뭉쳐 있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이것은 Newton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된다. 또한 9개의 혹성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주 만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낼수록 그 신비함에 감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대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가 '인공 강우'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비를 특정한 지역에 내리게 하려고 해 봤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였다.

태양 안에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Nuclear fusion) 현상이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간단한 물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좋겠다. 물을 예로 들면 물(H_2O)은 분자이고 그 안에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짝꿍이 되어서 물이라는 분자가 된 것이다. 이 원자를 더 쪼개 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놈이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좀 짫구는 데가 있어서 계속해서 핵을 요리해 보니 핵에는 양성자(proton)이라는 것과 중성자(Neutron)라는 것이 합쳐 있음을 찾은 것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이루고 핵과 전자가 합해서 원자를 이루고 원자와 원자가 합해서 분자를 만든다. 그런데 양성자는 양(+) 전기를 가졌고 전자는 음(-) 전기를 가져서 서로 땡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물질 구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정도도 일반 물리학 초보는 되는 것이므로 끝내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수소원자는 몇 개의 동위 원소가 있다. H-1(Hydrogen One)은 전자(electron) 한 개, 양성자 한 개, H-2는 deuterium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전자 한 개,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2=양자+중성자); H-3는 tritium라고 명명했는데 전자 한 개, 양성자 한 개, 중성자 2 개, (3=양자+중성자2개); Helium-4는 전자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4=양자 2개+2중성자 2개) 등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질 구조를 수술 해 낸 물리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을 들었다. 즉 Uncertainty Principle(불확정설)이다. 전자는 핵 주위의 여러 궤도(K-Shell, L, M, N, Shell 등)를 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법칙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조용히 앉아서 낮잠 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 강아지처럼 쏴쏴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고, 하는 역할을 봐도 그 존재가 확실한데, 그 전자의 위치는 딱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불확정하다는 말이다.

Nuclear Fusion



Nuclear energy can also be released by fusion of two light elements (elements with low atomic numbers). The power that fuels the sun and the stars is nuclear fusion. In a hydrogen bomb, two isotopes of hydrogen, deuterium and tritium are fused to form a nucleus of helium and a neutron. This fusion releases 17.6 MeV of energy. Unlike nuclear fission, there is no limit on the amount of the fusion that can occur.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도표(도표 안의 빨간 공은 양성자이고 흰 공은 중성자이다)에서 보듯이 deuterium ($H-2$)과 tritium($H-3$)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중성자라는 자식을 낳는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다. 그리고 한 몸이 된 부부를 Helium-4라고 부른다. 이렇게 태양에서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는 행사를 지난 4.5 billion years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이때 생산되는 에너지는 18 Mega electron volt가 된다. 핵분열 보다 약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지만 수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된다. 현재 이런 핵융합시설을 땅 위에 만들어 보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제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이다. 내가 CVI Laser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 연구에 사용하는 몇 가지 부품들을 납품했던 관계로 그 연구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California에 있는 Livermore에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 연구소가 있다. 그들의 연구 제목 중에 National Ignition Facility(NIF)란 금세기 최대의 연구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가 지금까지 설명한 태양에너지를 California에서 만들겠다는 야심만만 한프로젝트이다. Laser 중에 neodymium yttrium lithium fluoride (Nd: YLF) 가 있는데 1053 nano meter(nm)에서 발진하고 이런 laser 192개를 동작시켜

서 콩알만한 target에 pico second(10^{-12} 초)에 동시에 때려서 원자핵의 융합작용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물은 상기한 H-2 와 H-3로 되어 있다. 고성능 Nd:YLF laser로 그 목표물을 녹이면 된다. 이때 나오는 열이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융합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 지려면 목표물의 온도가 엄청 높아야 하고 Self sustaining fusion이 지속 되어야 한다. NIF에서 근무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창한 것으로 500 tera Watt (500×10^{12} 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측한다. 이 엄청난 전력이면 전세계에서 채굴하는 oil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전력과 비슷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현대 이 연구에 쓰여지는 돈이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너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새로운 technology가 만들어지므로 낭비한다고만 보는 평은 조금 근시안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도 유럽 공동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중인데 진척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가 성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 분이 정말 계시느냐고 꼬집는데, Uncertainty Principle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음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나도 평생을 과학 분야에서 일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 물론 원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도 했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홍 장로 초청 집회 사진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간증문]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춘화 집사

저는 2009년 1월 한국에서 이 곳 Albuquerque시 UNM으로 남편의 안식년 휴가차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1년이 넘게 오른쪽 어깨가 아픈 오십견이 있었고 걸레질을 하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잘못 움직이면 어깨통증 때문에 한참을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매일같이 몇 달 동안 받아도 결국 낫지 않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여름에 저는 감기몸살에 걸려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만에 감기는 나았는데 오른쪽 팔에 이상증세가 왔습니다. 이미 있던 어깨통증 뿐 아니라 팔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살짝만 움직여도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으로 팔을 굽히거나 펼 수도 없고 세수도 못하고 화장품도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조차 왼손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안마해준다고 팔을 만지기라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팔을 쓰지 못하더라도 통증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고 잠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머칠 지나면 낫겠지' 생각해서 기다렸고 병원 가는 것도 의료비, 영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3주일 가량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나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도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교회 자매님 중 한분은 목디스크 증상과 비슷하다면서 고맙게도 Chiropractor 예약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가기 전에 우리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한번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새벽에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도 팔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후 2일간 저는 팔의 통증은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치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을 움직였는데 통증도 없고 마음대로 굽히고 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어깨와 팔을 막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으로 아팠던 어깨의 통증까지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화로 얘기했더니 "팔이 나올 줄 알았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내가 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큰 손이 언니 어깨를 만지는 환상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저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음대로 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기도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Housing & Deco]

겨울 옷 보관의 기술

출처: 행복이가득한집 (2010년 2월호)

기자/에디터: 이지현 / 사진: 김성용

한두 번밖에 착용하지 않아 깨끗해 보이는 옷은 그냥 장롱 속에 보관할지 세탁 후 보관할 지 고민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끼는 옷에 곰팡이가 생겨 속상해하고 싶지 않다면, 철 지난 겨울옷은 수납하기 전에 반드시 깔끔하게 손질하고 세탁해 보관해야 한다. 코트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스웨터에 구멍 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재별로 세탁한 후 방습·방충제와 함께 보관한다. 단, 가죽이나 모피는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이 원칙. 가죽과 모피는 가죽 전문 세탁소에 5년에 한 번 정도, 무스탕은 2~3년에 한 번이 적당한 세탁 주기다. 오리털 파카 역시 드라이클리닝보다 물빨래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방법. 모피는 보통 가볍게 흔들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심한 오염이 생겼을 경우에만 세탁을 한다. 믿을 만한 모피 세탁 전문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모피 구입처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가죽 소재는 입고 다닐 때보다 보관할 때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입던 상태 그대로 옷장 안에 넣어 보관하면 알게 모르게 묻어 있던 오염 물질에 의해 탈색이 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가죽에 묻어 있는 먼지나 오염물을 털어낸 다음 어깨너비에 맞는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충분히 통풍해준다. 얼룩이 생겼을 때는 가죽 전용 왁스나 콜드크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문지르듯 닦는다. 울·니트 소재 의상은 구입 후 처음 한두 번은 드라이클리닝하고 다음부터는 물세탁한다. 세탁시 옷의 수축과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 캐시미어 등 100% 천연 소재는 울샴푸 대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모발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겨울옷, 소재에 따라 보관법이 다르다

♣니트 폴오버는 세로로 수납한다 니트를 구겨지지 않게 보관하려면 접는 방법이 일정해야 한다. 옷을 바닥에 펼치고 양팔 부분을 앞쪽으로 교차한 뒤 한지나 습자지를 중간에 끼워두는 것이 포인트. 어깨너비는 수납 공간의 폭에 맞춘다. 잘 접은 니트 폴오버를 서랍장 안에 수납할 때는 책을 꼴듯이 세로로 세워 놓는다. 가로

로 눕혀서 보관하면 아래에 놓인 옷이 눌리고 어떤 옷을 수납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 북엔드로 지지하면 옷이 흐트러지지 않아 더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 북엔드는 가방을 세워두는 데도 요긴하다.

♣**모피 코트는 통풍이 중요하다** 모피는 습기에 약한 소재이다. 세탁소 비닐 커버를 씌워두면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생기기 쉬우므로 캔버스 원단이나 부직포 소재의 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방습제는 모피 자체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둘 것. 털이 눌릴 수 있으니 형태를 잡아주는 도톰한 커버가 좋다. 털이 누웠을 때는 누운 부분에 스팀 타월을 가볍게 대었다가 떼고 빗으로 빗어주면 생생하게 살아난다.

♣**실크 원피스는 투명 비닐 봉투에 넣기** 실크 원피스, 블라우스 등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의상은 투명 봉투에 넣어 바구니에 수납한다. 모양대로 잘 접어 넣으면 구김도 덜하고 스크래치도 방지해준다. 포장지류를 판매하는 남대문시장이나 방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옷을 구입할 때 받은 봉투를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

♣**패딩 재킷은 돌돌 말아 묶기** 패딩은 오랫동안 걸어놓으면 털이 아래로 모여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옷걸이에 거는 것보다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피는 크지만 주름이 잘 생기지 않으므로 말아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 목 부분부터 공기를 압축해가며 돌돌 만 뒤 리본으로 묶고 숨을 죽여 쇼핑백이나 상자에 넣는다. 사이즈가 크고 튼튼한 쇼핑백 역시 훌륭한 수납 용품이 되는데, 서랍장 높이에 맞춰 윗부분을 자른 뒤 안쪽으로 접어 테이프로 고정한다.

♣**스키복은 압축 팩에 넣기** 방수·발수 기능이 있는 스키복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기능이 손상되므로 세탁소에 맡기는 것보다 집에서 중성세제로 약하게 손세탁을 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압축 팩에 넣어 부피를 줄여 수납할 것. 습기나 먼지, 곰팡이 걱정을 덜 수 있다. 단, 니트나 모직 코트, 모피 등 통풍이 필요한 천연 소재 의상을 압축 팩에 넣는 것은 금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다용도실이나 지하실에 보관해야 할 때만 압축 팩을 사용한다.

♣**울 코트, 어깨 덮어 보관하기** 모 소재 외투는 드라이클리닝 한 후 베란다나 옥상에 걸여둬 자연 통풍해 기름기를 날려 보낸 뒤 보관한다. 소재 재킷은 어깨에 먼지가 쌓이기 쉬우니 어깨용 옷 커버를 씌울 것. 어깨용 옷 커버가 없을 경우 유행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스카프나 머플러를 어깨에 덮어 커버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이디어.

♣**재킷,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면 일석이조** 옷장 안은 의외로 데드 스페이스가 많다. 옷을 걸어둔 행어 아래 공간이나 여행 가방 안도 패딩이나 재킷, 니트 등 두꺼운 겨울옷을 수납하기에 좋은 공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수납 상자에 옷을 차곡차곡 넣은 후 여행 갈 때는 수납함째로 꺼내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다시 수납함째로 넣으면 간편하다. 일 년에 1~2회 여행을 한다면 그때마다 자연 통풍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겨울 소품, 아이디어 수납용품으로 승부하라

♣**철 지난 계절 소품은 지퍼백에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소품을 수납할 때 애용하는 방법. 철 지난 수영복, 스키용품, 장갑, 털모자 등은 지퍼백에 넣으면 한눈에

보이고 부피도 줄일 수 있다. 아이템별로 소형 지퍼백에 하나씩 넣거나 같은 종류끼리 대형 지퍼백에 넣은 뒤 투명 박스에 한꺼번에 수납한다. 습자지나 한지 등을 함께 넣는다.

♣**가방은 S자 고리 활용**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잡히지 않는 가방은 걸어 수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옷걸이에 끼워 쓸 수 있는 S자 고리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활용할 것. 납작한 가방은 상의와 함께 걸어 수납하면 편리하다. 가방을 따로 수납하는 미니 드레스 룸이나 선반 장이 없다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패브릭 선반장 등 아이디어 수납 가구를 이용해보자.

♣**부츠는 탈취제와 함께 보관** 올 겨울 유행한 어그 부츠는 얼룩 부위에 스프레이 타입의 착색제를 뿌리고 가죽 부츠는 전용 클리너로 세탁한 후 흡집 관리용 크림, 가죽 에센스를 차례로 덧바른다. 부츠는 현관 앞 신발장에 세워두는 것보다 상자에 넣어 창고나 베란다에 보관하는 게 좋다.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고 수납 전 이틀 이상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세워서 보관할 때는 신발 안에 신문지나 숯 탈취제를 넣어두면 모양도 살고 방습 효과도 좋다.

♣**모자는 아이디어 수납 걸이 활용** 모자는 수납 지정석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템. 보통 여러 개를 겹쳐서 보관하는데, 이때 아래쪽에 놓인 것은 모양이 망가질 수 있다. 신발을 보관할 때처럼 움푹한 곳에 신문지를 뭉쳐 넣고 하나씩 선반에 올려두거나 행잉 수납함에 걸어 보관하면 모양이 유지되면서 방습 효과도 있다.

♣**목도리, 코트와 함께 걸기** 풀코디의 개념으로 코트에 자주 매치하는 목도리나 스카프는 코트에 감아두는 것이 방법. 옷 입을 때마다 따로 찾지 않아도 돼 무척 편하다. 퍼 머플러는 스팀을 쏘면서 빗질하되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빗질해서 먼지를 없앤 뒤 펄트나 부직포백에 넣어 보관한다. 캐시미어 머플러는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실크 주머니에 보관한다.

♣**스타킹, 레깅스는 빈 과자 캔에 보관** 스타킹, 레깅스 등은 정리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뒤죽박죽이 된다. 양말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분류해 수납하는 것이 좋는데 스타킹이나 레깅스 등 돌돌 말아 넣을 수 있는 작은 소품은 규격이 일정한 과자 통을 이용한다. 스카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방충제와 함께 넣어 보관한다.

♣**한복, 한지 상자 그대로 보관** 속곳, 치마, 저고리 순으로 한복 보자기에 넣은 후 한지 박스에 보관할 것. 대부분 페티코트 속치마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므로 폭을 4등분해 접은 후 다시 길이로 4등분하여 네모나게 접는다. 접은 속곳과 버선은 비닐 백에 넣은 후 공기를 빼면 납작하게 포장된다. 치마는 말기 돌레 방향으로 4등분하여 접은 후 길이로 다시 4등분하여 접는다. 양쪽 저고리 소매를 접어 치마의 접힌 면으로 끼워 넣으면 고정된다.

♣**가죽 장갑, 융 커버에 넣기** 손가락 사이나 바느질 선의 틈에 먼지가 잘 끼기 때문에 얇은 브러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천연 가죽 소재는 융 커버에 넣어 보관하고, 스웨이드처럼 색이 바라기 쉬운 소재는 종이 봉투에 넣으면 탈색을 막을 수 있다. 상자에 수납할 때 과자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실리콘을 함께 넣으면 건조제 역할을 한다.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n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6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n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6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
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6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령교회: P.O. 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더야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감리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5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C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대추할: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구인/구직

렌트/부동산

룸 렌트 (Room Rent)
Now available 2 rooms
of 3 bedroom
Rent: \$300
Deposit: \$100, Utility
divided by using room
number no smoking,
no pet
(505) 352-5775
(505) 331-8607

사고/팔고

정보마당

도와주세요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A-1 한국식품점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불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